朝鮮日報 夕刊發行六面

社說

奉天派沒落의 吊鐘

一

滿洲의 王으로 隱然自處하고 또나어가 天下를 所掠하려고 準備不怠하던 奉張의 勢力은 只今 急轉直下的으로 千仞의 深淵을 向하고 떠러저 나려가는 感이 잇다 吳가 가고 張이 오는 것이 中國人民에게 무슨 큰 關係가 잇섯스며 張이 가고 馮이 온들 또 무슨 큰 關係가 잇스랴? 그러나 우리는 그 混沌한 가온대 잇서서도 한가지 注意할 것이 잇스니 그는 吳 張 馮等軍閥이 오고 감에 中國人의 思想이 變動되여 가는 것이다 中國人民은 漸次明白히 軍閥의 無價値를 覺得하게 될 것이다 軍閥이라는 것이 왜 어나가는 大衆의 압해는 또한 無力하다는 것도 感得하게 될 것이다 軍閥이라는 것이 私腹을 充하기를 唯一의 目的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아럿거니와 그것이 亦是 無力하다는 것이 大衆의 압헤 暴露된 것이 今番 中國動亂의 中國民에게 준 最大敎訓이다

二

昨年의 第二次奉直戰에 잇서서는 奉天派는 吳佩孚派의 內訌으로 因하야 意外의 利益을 보게 되엿더니 今番에는 自派의 內訌으로 因하야 馮玉祥派의 利益을 增進하게 되엿다 張作霖의 信任하던 李景林 郭松齡 兩氏의 謀反行動은 張氏의 肝膽을 차게 하는바 잇섯다 그 結果 張氏의 參謀되는 楊宇霆氏는 日本에 亡命함을 傳하게 되고 張作霖 自身의 ...

...

祥이 또다시 吳佩孚 張作霖의 地位를 차지하고 中央政府를 擁護한다는 名義下에 天下에 號令하게 될 것이다

四

그리하게 되면 그것이 馮玉祥이 되거나 또는 吳佩孚가 되거나 그들은 다시 赤露와 敵對的 關係를 가지게 될 수 잇슬 것은 只今부터 想像할 수 잇다 萬一 馮玉祥이나 또는 吳佩孚가 土耳其의 「케말 파샤」와 가튼 愛國愛民의 熱誠이 잇다면 能히 中國民의 信望을 어더 中國民을 糾合할 수 잇스려니와 그러치 못하면 또다시 그 部內의 分裂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야 漸次 軍閥의 分解作用이 進行하게 되야 軍閥全體의 沒落을 告하고 참으로 國民을 爲한 國民으로 自由한 勢力이 中國을 支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 잇서서 우리는 奉天派의 內訌으로 因하야 그 沒落의 吊鐘을 듯게 되는 것을 中國民解放途程上의 一大前進的 現象으로 아는 바이다

勢窮力盡한 張氏

楊氏歸奉電命

◇郭、李兩氏의 威脅에 恐懼하야

(奉天二十七日發) 二十六日夜 張作霖은 大連에 留하는 楊宇霆에게 向하야 郭松齡은 旣히 明白히 叛하고 李景林과 共히 奉天을 威脅하라 하니 今日內로 何等의 遲疑할 것 업시 速速歸奉하라는 電命을 發하얏는데 楊氏로부터도 또한 何等의 返答이 無하얏더라

末路가 慘澹한 張氏

住宅까지 避難移轉

萬一을 念慮하야 附屬地에 借家

(奉天二十七日發) 張作霖은 萬一을 念慮하야 附屬地 浪速通으로 家屋을 契約하얏는바 王永江은 從來의 排日이 親日로 變하야 萬一 日本官憲이 彼를 保護하드래도 居留民은 一齊反對하리라고 輿論이 藉藉하더라

奉軍師長行方不明

郭氏에게 捕縛된듯

(奉天二十七日發) 奉天軍第九師長 汲金純은 二十六日朝부터 行方不明이 되엿는데 汲은 今回 郭松齡의 反奉에 對하야 最히 反對하엿슴으로 捕縛되여 灤州附近에서 極刑에 處한듯하더라

郭氏掌軍은 不確實?

(奉天電) 山海關以北은 奉軍의 通絡이 有하야 郭松齡軍은 秦皇島附近에 不在한 事가 確實하다 凡 逃亡하야 來하는 者가 多하나 全然 事情을 不知한다 하며 郭松齡의 軍隊掌握은 아즉 堅確치 못한 듯하더라

張宗昌氏 結局失脚?

進路困難한 狀態

(東京電) 張宗昌은 漸次 苦境에 陷하야 只今은 李景林의 힘으로 山東에 滯留하거나 靑島로부터 海路로 奉天에 撤還하거나 兩途外에 ...

時局과 馮氏

四條決定

(北京二十七日發) 馮玉祥은 包頭出發前에 時局에 對하야 左와 如히 決定하얏더라

一、平和手段에 依하야 目的을 達할 일

二、國民軍第二、三軍은 自重을 命함

三、第一軍司令部는 張家口에 移함

四、近畿에 增兵을 行함

奉軍潰亂과 日本

國民의 非常試鍊日切迫

事態進展에 따라는 朝鮮軍爲先出動?

豫算問題決定을 따러

總督의 進退도 問題

◇從하야 總監後任도 遲延不免

(東京電) 政務總監後任問題決定의 遲延은 齋藤總督이 先次目下 大藏省과 交涉中인 明年度豫算案은 統治의 根本方針에 基하야 産業開發의 重要政策을 表現하려고 編成한 것임으로 此가 決定後에 總監의 後任을 決하여도 遲치 안타는 意嚮을 持한 外닭이다 然이나 右豫算의 中心問題인 産米增殖計劃은 總督府 大藏兩當局互讓의 結果 妥協解決을 見하엿스나 第二의 問題인 鐵道、河川、港灣、道路、砂防事業十年計劃案은 大藏省이 緊縮政策을 構으로 容易히 承認하지 안코 折衷의 結果 總額三億五千萬圓 十五年度年割額三百萬圓에 對하야 半額을 承認할 模樣인데 朝鮮으로서는 終末外지 要求額의 六七割外지의 承認을 得치 안으면 事業의 遂行을 하지 못하겟슴으로 右要求가 不通되는 때에는 齋藤總督은 責任上 其地位에 晏如함을 得치 못할 것이라 하야 此決定如何에 依하야는 總督自身의 進退問題를 考慮할 터이며 兼하야 總監後任問題도 右解決後에 讓할 方針인데 右意嚮은 旣히 二十四日 首相과 會見할 際에 總督으로부터 首相에게 言하엿다 더라

平壤府十倍擴張

設計總面積略四平方里

今年內로 總督府에 申請할터

開城藥令 永久設置計劃

晉州共進會 二十四日閉會

九項決議

洪原靑年聯盟 執行委員會

臨靑執行委員會

岩泰小作臨總

七百餘名出席

岩泰小作人 告知書返戾

洪原靑總規約改定

工場制度改善

潭陽勞靑의 緊急會開催

運動界

第二回 咸南蹴球

兩日大激戰

四郡聯合庭球

優勝은 扶餘軍

朔昌蹴球大會

全州少年野球

全羅南道少年蹴球

夜校建築落成

無産少年의 長文祝辭發送

仲石水門起工

工費約七千圓

巨濟漁業組合

總代任期問題 波瀾再起可慮

山西面民代表

道當局에 陳情

龍岩靑年創立

大革新組織

薩水俱樂部

讀者慰安 「라디오」大會

「ㄴㄷ」會로 變更

基洞女子夜學

木浦勞總移轉

植桑十二萬本

製繩競技會

新築落成과

金組創立紀念

平南道의 煙草耕作地域

地方人事消息

◇寸鐵◇

호박신세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aturday, Nov. 28th. 1925.

Keep wholesome, hopeful and sympnthetic with the world at large, whatever individuals may do. Expect life to use you better every year, and it will not disappoint you in the long run. For life is what we make it.

He who understands his own divine nature will grow more beautiful with the passing of time, for the God within will become each year more visible.

—Wilcox.

AUSTRALIA.

The Undiscovered Continent.

II

Drought and fire also have played their part in restricting the outreach of population. For several years only a few settlers, among them the few convicts of whom most foreiners seem to have heard, came. The country except for some adventurous, intrepid explorers, remains in its virgin state.

The great vast internal solitudes beyond the coastal mountain ranges kept their secrets intact. The mile upon endless mile of undulating and pastoral land with scattered low gum trees kept the glory of the peerless summer sunset to themselves. Great forests of eucalyptus perennially somber green lay in the gullies of the ranges whispering under the great fretted vault of clarified southern nights or lazing beneath azure domes through bright, clear, long day. The bushman's axe today echoes through the quiet of untold centuries as giant forest trees are felled.

There is no "Fall" in Australia. The flora is evergreen. The foliage of the eucalyptus and other trees give little shade protection from the sun. The leaves are slantwise to the sun. Nature has taught them that in this way they can better conserve the scanty moisture by restricting evaporation.

Many trees have no bark and mostly nature in this way has fashioned differently from the other lands.

英文欄

濠洲（二）